

귀신·악마·지옥 ... 여름엔 역시 납량극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저스티스'



'호텔 델루나' 지배인 여진구(왼쪽)와 사장 아이유

안방극장 섬찝하고 기괴한 장면으로 공포 심리 자극 '호텔 델루나' '악마가 너의 이름을...' '저스티스' 등 계절성 공식에 호러 느낌 섞은 다양한 장르 인기

'더위를 피해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는 의미의 납량(納涼)은 역시 여름철 안방극장의 단골 테마다.

물론 귀신이 가장 강력한 주인공이지만 꼭 귀신이 아니라도 섬찝함을 풍기는 소재는 많다. 웃음을 싹 걷은 장르 속 잔인하고 기괴한 장면이나 캐릭터들로부터도 납량은 충분히 얻는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역시 tvN 주말극 '호텔 델루나'.

이 작품은 귀신들이 저승으로 떠나기 전 목숨 호텔에 버려지는 천년 묵은 여사장 장만월(아이유 분)과 그와의 남다른 인연에 총지배인으로 취임한 구찬성(여진구)의 로맨스가 골자다.

하지만 로맨스에 호러를 더한 '호러맨스' 장르에서 독보적인 재능을 보인 작가 홍자매(홍정은, 홍미란)의 드라마답게 곳곳에 공포 요소가 포진한다.

만월과 찬성의 로맨스에 심장이 간지럽다가도 찬성의 첫 손님이던 눈 없는 귀신 주희(한재이)나, '귀신 손님 끝판왕'으로 점쳐지는 13호실 귀신이 등장할 때면 등골이 서늘하다. 그새 한층 더 발전한 컴퓨터그래픽 기술이 시청자의 공포 심리를 제대로 자극한다.

tvN 한 관계자는 4일 "너무 강도 높은 호러극은 마니아층에만 인기가 있는데, '호텔 델루나' 처럼 호러에 로맨스, 또는 코믹이 더해지면 시청자층도 그만큼 넓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다.

'호텔 델루나'는 매회 7~8%대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tvN 수목극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악마와의 거래라는 독특한 소재를 내세웠다.

주인공인 작곡가 하림(정경호)이 영혼을 판 상대는 악마 류(박성웅). 다만 류는 모태강이라는 톱배우의 몸을 숙주 삼아 살기에 평소에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포스터에서부터 보듯 그랜드 피아노 위로 비치는 류의 모습은 웬만한 호러극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섬찝하고 기괴한 형상이다. 악역을 할 때마다 늘 서늘한 눈빛을 보여준 박성웅이 연기하는 모태강 자체도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그와 호흡하는 정경호는 평소보다도 훨씬 체중을 감량한 듯한 모습으로, 악마와의 거래 후 심신으로 고통 받으며 대가를 치르는 예술가를 고스란히 표현한다.

물론 지난해 '라이프 온 마스'에서 보여준 콰버의 코믹 호흡도 인상적이다.

이밖에 KBS 2TV 수목극 '저스티스'에서는 귀신, 악마는 등장하지 않지만 현대판 악의 화신인 송우용(손현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눈빛이 있다. 열대야를 잠시 식히기에는 충분한 공포감이다. 이 작품은 시종일관 무겁고 차가운 톤을 유지하며 여름철에 적합한 장르극

으로 자리잡았다.

다음 달 31일 선보인 OCN 주말극 '타인은 지옥이다' 역시 원작 웹툰에서도 느끼던 공포를 잔뜩 입힌 스릴러극으로 예고됐다. 이 작품은 서울에서 낯선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뜻하지 않게 타인이 만든 지옥을 마주한다는 내용이다.

사전 공개된 포스터 중에서는 특히 영화 '기생충'에서도 반전 연기를 선보인 이정은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는 고시원 주인 엄복순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포스터 속 그는 열린 창문 너머로 화려한 꽃무늬 패턴 상의를 입고 파마머리를 한 채 웃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착해. 들어올 거지?'라며 입술을 권유하는 그의 얼굴에서 납량이 느껴진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겨울에 따뜻한 가족극을 보고 싶듯이 여름에는 오싹한 호러극을 보고 싶은, 이제는 공식처럼 굳어진 '시즌별리티'(seasonality, 계절성)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옥택연-이연희, MBC 수목극 '더 게임' 주연

내년 1월 방송 예정

배우 옥택연과 이연희가 영화 '결혼전야' 이후 6년 만에 드라마로 다시 만난다. 드라마 제작사 몽작소는 옥택연과 이연희가 내년 1월 방송 예정인 MBC TV 새 수목극 '더 게임:0시를 향하여'에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작품은 죽은 직전의 순간을 보는 예언가 태평(옥택연 분)과 강력반 형사 준영(이연희)이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 서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가는 이야기다. 옥택연은 "전역하고 첫 작품인 만큼 이전보다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연희는 "대본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긴



옥택연

이연희

장감 넘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 역할도 매력적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출은 지난해 '시간'을 만든 장준호 PD가, 극본은 '드라마의 제왕' 등을 쓴 이치호 작가가 맡았다. /연합뉴스

장사 버라이어티 '강식당3' 5.9% 증영

tvN 9일부터 엽정아 등 출연 '삼시세끼 산촌편' 방송

tvN 금요일 예능 '신서유기 외전-강식당3' (사진)가 시작부터 끝까지 유쾌한 웃음과 함께 종영했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후 9시 10분께부터 방송한 '강식당3'은 5.9%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강식당' 시리즈는 지난 5월 31일부터 떡볶이와 튀김, 국수를 파는 '강식당2'로 시작했고, 지난달 5일부터는 제대한 규현이 합류하고 피자-파스타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강식당3'로 새롭게 출발했다.

매인 셰프 강호동을 비롯한 멤버들이 요리 도중 간간히 실수하면 서로를 놀리거나 티격태격 다투는 등 '강식당'의 웃음 포인트는 이번 시즌에서도 여전한 힘을 발휘했다.

마지막 회 감독판에서는 이수근과 은지원이 지난 '신서유기' 시즌에서 당했던 '아이스란드 오로라 보기' 미션을 3박 4일 일정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또 다른 시즌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강식당3' 후속으로 오는 9일부터 엽정아, 윤세아, 박소담이 출연하는 '삼시세끼 산촌편'이 방송된다.

한편, 전날 방영한 예능 중 MBC TV '나 혼자 산다'가 8.4%~9.1%로 금요일 예능 1위를 차지했으며 JTBC '비긴 어게인'은 4.436%(유료 가구)를 기록했다.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는 2.3%~3.4%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2019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00 여름특집 배틀 트립 스페셜(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벵이(재)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수인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미니다큐(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국을 달린다(재) 20 DMZ 물다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월드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30 특선다큐멘터리 아성의 대평원 세령계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스트레이트	00 17세의 조건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특집 시청자 음악회(재)	10 안녕하세요 스페셜	05 문화콘서트 난장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웰컴2라이프(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로보가 폴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다큐 오늘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땡땡땡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몬카트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로맨틱 지중해 1부 지중해의 푸른 낭만 크레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여름 한 시발, 냉국기행 1부〉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땡땡땡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음 7월 5일 甲戌)

<p>子 36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해결 될 것이다. 48년생 우연한 기회가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60년생 밤심하다 가는 급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72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다보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84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6, 37</p>	<p>午 42년생 관계의 인식에 있어서 유연함이 절실하다. 54년생 경험의 참작과 전문성이 옳은 판단으로 이끈다. 66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만큼은 알찰 것이다. 78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90년생 영동한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5, 86</p>
<p>丑 37년생 성공의 기틀을 마련한다. 49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61년생 준비해두면 결정적인 시기에 역삼할 것이다. 73년생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단계이다. 85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23, 73</p>	<p>未 43년생 바람직한 조건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 55년생 파생되는 형세까지 다각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다. 67년생 직접 실행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9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91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한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35, 20</p>
<p>寅 38년생 발표되는 작용과도 같은 이치이리라. 50년생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다. 62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중차대한 것에 신경 쓰다가 종 된 것에 소홀히 할 수다. 86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다. 행운의 숫자 : 17, 95</p>	<p>申 44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56년생 결혼선 점은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갈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80년생 현상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92년생 울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7, 29</p>
<p>卯 39년생 한 번 결정된 것은 번복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51년생 과격적인 제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63년생 목이 마를 때 물을 갖다 주는 이가 보인다. 75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87년생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4, 87</p>	<p>酉 45년생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옳다. 57년생 명분은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69년생 흥사가 뒤따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다. 81년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93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89, 45</p>
<p>辰 40년생 없어졌을 때에라야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리라. 52년생 변수는 없다. 64년생 반복적인 경향의 예로 사항이 보인다. 76년생 아직 실행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때다. 88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 시키리라. 행운의 숫자 : 02, 21</p>	<p>戌 34년생 전례대로만 행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46년생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58년생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에 불참한다. 70년생 의식의 전환이 용이하다. 82년생 짜임새 있는 구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행운의 숫자 : 32, 99</p>
<p>巳 41년생 돈을 보고 도리깨짐을 즐기고 있는 이치이다. 53년생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후련하겠다. 65년생 성과에 흥백 취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형상이 비친다. 77년생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89년생 생사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행운의 숫자 : 43, 66</p>	<p>亥 35년생 밤심하다가 순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47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59년생 오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71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순조롭다. 83년생 바라는 하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행운의 숫자 : 91, 6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